

유치원통일교육의 방향과 실제

고 대 만

(제주교육대학교 윤리교육과 교수)

목 차

- I. '삶의 질' (행복)과 관련된 통일문제
- II. 통일문제를 둘러싼 쟁점들
- III. 왜 통일교육을 실시하는가?
- IV. 통일교육의 성격
- V. 유아교육과 통일교육의 관계
- VI. 幼稚園통일교육의 실제
- VII. 결어
- 참고문헌

I. '삶의 질' (행복)과 관련된 통일문제

통일문제는 과거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쳐왔으며, 통일되는 과정까지는 물론이려니와 통일 이후에까지도 우리의 삶의 질을 좌우하는 중요한 변수 중의 하나가 될 것임은 분명하다. 6·25 전쟁으로 인한 직접적인 정신적 물질적 피해는 이루 말할 수 없거니와 분단의 지속과 더불어 정신적 물질적 피해도 지속되어 왔던 것이다. 반목과 대결과 경쟁의 적대적인 관계로 점철되어 오면서 북한 사람들은 물질적 궁핍과 인권의 전면적 유린을 겪어 왔으며 남한 사람들도 전쟁의 공포로 인한 정신적 심리적 불안, 분단상태가 아니었다라면 불필요했을 여러 가지 자

유의 제약들, 그리고 역시 분단상태가 아니었다라면 그다지 긴급했다고 여겨지지 않는 과다군사비의 지출, 그리고 남북한 모두 국제무대에서의 제로섬적 경쟁으로 인한 국력의 소모 등 분단으로 인한 우리의 정신적 피해, 물질적 손실, 총체적 역량의 약화는 우리 한민족으로서 아주 불행한 역사라고 아니할 수 없을 것이다.

남북관계구조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거의 모든 분야에 제약을 가하는 고차구조이다. 그 구조는 예전보다 경직된 고차구조에서 많이 벗어나고 있는 듯 보이지만 여전히 그것은 고차구조의 구실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듯 남북관계 및 통일문제는 아주 깊숙이 구조적으로 우리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남북관계 및 통일을 문제삼는 것이다. 우리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문제를 숙고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이 문제는 일개인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작동하는 구조적인, 체제적인 문제로서 우리가 해결해야 할 특수문제 중의 하나이다. 말하자면 우리는 다른 나라 혹은 민족들이 겪어야 하는 일상적인 문제들 이외의 또 다른 짐을 더 짊어지고 힘겹게 나아가고 있는 실정인 것이다.

남북관계구조는 새로운 세기를 전후하여 많이 변했다. 통일은 멀고도 험난한 길이지만 통일을 향한 대장정의 길에 있어서 새로운 세기를 전후한 질적인 변화는 다시는 과거로 회귀하지 못할 루비콘 강을 건넜다고들 평가하기도 한다. 그렇다고는 하더라도 우리는 남북관계구조의 변화를 진화론적이고 과정적인 관점에서 차분하게 합리적으로 숙고할 필요가 있다. 통일은 우리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지만 성급하게 서둘렀다고 해서 될 일도 아니며 신중하게 생각한다고 해서 그것이 더 지체되거나 하는 그런 성격의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것은 중요한 만큼 그것이 미치는 영향 및 범위도 거의 전방위적인 것이기 때문에 전면적인 관점에서 그 문제들을 차분하게 계획적으로 플랜을 가지고 접근해 갈 필요가 있는 것이다. 통일은 중요한 가치임에는 틀림없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 최고의 가치일 수는 없다. 우리의 최고의 가치로 삼아야 할 것은 역시 우리의 삶의 질이 아닐까 한다. 좀 전에도 언급했지만 통일은 우리의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는 전제하에 우리의 관심사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 통일을 위한 교육이 더 없이 중요한 문제이긴 하지만 통일교육이 교육의 전부일 수는 없고, 모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에서 진행되는 교육 전체의 일부를 차지한다는 점을 인식해야 할 줄로 생각된다.

II. 통일문제를 둘러싼 쟁점들

어떤 상태를 두고 통일이라 하는지, 통일에 도달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인지, 통일된 국가의 체제는 어떤 체제일지, 통일의 적당한 시기는 언제인지 등에 관한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그도 그럴 것이 이 통일의 개념은 역사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분단 이후 남북관계의 성격, 국제정세의 변화 등에 따라 여러 가지의 주장이 있어 왔던 것이다. 또 이념적 스펙트럼상의 차이도 또한 통일의 과정, 시기, 방법 등에 관해 상이한 주장을 해 온 주요인이 되었다. 이 다양한 논의들을 통합양태의 문제, 통합방법의 문제, 교류협력의 문제로 나누어 정리해보고자 한다.

1. 통합양태의 문제: 법적인 통일, 사실상의 통일

꼭 정치적인 법적인 통일이 이루어져야만 통일이라 할 수 있을까? 정치적인 통일, 체제상의 통일 없이 교류협력만 보다 자유롭게 이루어지는 것만으로도 통일이라 할 수 없을까? 물론 정치적 법적 통일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는 통일이라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실질적인 교류협력이 빈번하게 이루어진다면 그것은 법적으로는 통일이 아니지만 사실상으로는 통일이라 부를 수 있을 것이다. 법적으로는 통일의 상태지만 경제적, 사회문화적 격차가 심한 경우보다는 법적으로는 미통일의 상태지만 경제적, 사회문화적 교류가 실질적으로 빈번할 경우가 더 통일의 의미에 부합하는 것이 아닐까?

남북한은 반세기가 넘는 세월 동안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면에서 이질화되었다. 분단 이전에 합의한 '선호된 정치질서'의 경험도 없다. 특히 엄청난 생활수준과 의식수준의 격차는 북한 인민들의 상대적 박탈감을 심화시키고, 나아가 북한 지역의 내적 식민지화 위협성 때문에 남북한 사람들 간에 치유불능의 갈등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 이와 같은 현상은 최악의 경우, 한반도를 내전 상태로 몰고 갈 위험성이 있다. 따라서 보다 실천가능한 통일논의를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자명하다. 먼저 통일을 단일국가의 형성이 아니더라도 가능하다는 인식을 보편화시켜야 한다. 이제부터는 통일목표를 최소화시켜 민족공존·공영의 정신을 바탕으로 한 민족경제공동체 내지 국가연합 정도를 수립하는 것으로 축소시켜야 한다. 남북한이 별 문

제 없이 합의할 수 있는 공동이익가능영역을 하나하나 만들어 간다면 이것은 불가능한 일이 아니다. 이제야말로 남북한은 다같이 비현실인 1민족1체제 방식의 통일의 최대목표를 포기하고 통일의 최소목표의 실현에 관심을 가져야 할 때다. 남북한이 통일의 최대목표에만 집착하는 경우 그것은 통일이 아니라 정치게임으로 비화될 가능성이 높다.¹⁾

사실상의 통일상태가 오래 지속되다 보면 법적인 통일로의 분위기 환경여건이 조성될 가능성이 크고, 그렇게 되는 것이 순리적이라 생각된다. 법적인 통일에 매이다 보면 실이 많을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사실상의 통일을 향한 노력을 경주하고, 분위기가 무르익으면 법적인 통일로도 진전되는 방향을 잡도록 해야 할 것이다.²⁾

2. 통합방법의 문제

통합 혹은 통일의 방식은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그 첫째는 독일방식의 흡수통일론이고, 둘째는 월남방식의 적화통일론, 마지막으로는 남북한의 협의와 합의를 거친 공존형 통일론이다.³⁾ 이 중 첫째와 둘째는 남한은 남한대로 북한은 북한대로 자기체제중심으로 통일을 이루겠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 발상은 같은 것이다. 사실상 점진적인 통일의 과정도 따지고 보면 시기상의 문제이지 어느 한 쪽 중심의 통일을 상정하고 있는 것이다. 줄여 말하면 자기중심적 통일의 과정을 시기적으로 늦춘다는 것이다.

흡수통합론은 남북 쌍방에 의해 내면적으로 추구되고 있는 통일의 궁극적 의도라고 할 수 있다. 한국은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을, 북한은 이른바 고려연방제를 공식적으로 제의하고 있지만 그것의 숨겨진 기본의도는 각기 상대방을 흡수통합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다. 이러한 성격의 통일정책은 그 논리나 주장이 어떤 것이거나 간에 기본적으로는 한 체제가 다른 체제의 흡수통합을 기본목표를 삼고 있다. 즉 한국의 공식 통일방안인 민족공동체통일방안도 그것이 표면적으로 내놓고 있는 단계적인 통합논의나 성격을 강조하고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한국체제 내로 북한을 귀속시키려는

1) 최완규, "세계화의 압력과 새로운 통일론"민주평통 제293호, 2000년 9월 15일자 8면.

2) 문정인, "남북정상회담과 중층적 모순구조", 계간 『철학과 현실』, 2000년 겨울호, 철학문화연구소, 2000. 12. 1, p.64

3) 문정인, *op. cit.*

것이다. 물론 북한의 고려연방제도 외면적으로는 1민족 2국가 2체제 등의 논리를 내세우지만 실제로는 한국을 북한의 영향권으로 편입시킴과 동시에 북한 지배체제의 한반도 전역화를 의도하고 있다.⁴⁾

이러한 기본의도 때문에 남북한은 각기 현실상황에 대한 인식은 물론이고 그 대응 정책에서도 이러한 성격을 내포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현재 북한의 경제위기나 정치적 긴장 등이 요인이 되어 북한체제가 붕괴되고, 그것이 북한을 흡수통일 할 수 있을 것으로 전제하고 있다. 북한은 한국 내에서 친북단체나 친북인사들에 의하여 반정부적 사회혁명을 모색함과 동시에 사회변혁을 조성시킴으로써 한국은 북한체제와 유사한 정치체제로 전환시키고 궁극적으로는 북한중심의 통일, 즉 북한에 의한 흡수통합을 기대하고 있다.⁵⁾

흡수통합론이 비교적 단기간 내에 그것도 어느 한 체제의 주도 하에 일거에 다른 체제를 수용 통합하는 것을 의도하는 것이라면 단계적 통일론은 시기적으로는 비교적 장기적인 단계적 진전을 전제로 한다. 이 방법은 기본적으로 남북한간의 신뢰와 동질성 또는 일치성을 이룩하여 궁극적으로 대등한 조건과 상황을 만들어 자연스럽게 하나로 통합되는 것을 의도하고 있다. 한국정부에 의해 주장되고 있는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이나 북한의 연방제 통일방안은 기본의도와는 관계없이 겉으로는 이러한 전제 위에 놓여 있다. 즉 통일에 이르기까지 일정한 단계를 거치게 함으로써 그것에 의해 종국적으로 통일체제를 이룩하려는 것이다. 단계적 통일론은 남북 상호간의 신뢰와 민족적 동질감의 확대가 확보될 수 있을 때 비로소 그 가능성이 기대될 수 있기 때문이다.⁶⁾

6·15 정상회담에서 남북은 공히 흡수통일과 적화통일을 지양하고 협의와 합의를 통해 공존형 민족통일을 모색하겠다는 의견을 같이 한 바 있다. 특히 유럽연합을 모델로 한 통합의 단계를 거친 연방제 또는 단일국가로의 통일은 수십 년이 걸릴 수도 있다.⁷⁾

4) 진덕규, “분단된 민족의 통일과 발전”, 『세계화시대의 민족공동체』 (서울: 서강대출판부, 1998), p.61.

5) *Ibid.*

6) *Ibid.*, p.62.

7) 문정인, *op. cit.*, p.64.

3. 교류협력의 문제: 호혜주의, 비호혜주의

남한과 북한의 관계는 쌍방간 호혜적인 관계에 기초해야 하는가, 아니면 남한이 일방적으로 북한을 봐주는 비호혜적 관계에 기초해야 하는가? 여기에는 정치와 경제를 분리해서 접근하는가, 아니면 정치와 경제의 밀접한 관련 속에서 접근하는가? 하는 문제도 개입된다. 이와 더불어 인도적인 문제와 비인도적인 문제를 구분해서 북한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 하는 문제, 이와 관련하여 각종 단체들의 대북지원 계획 및 활동과도 연계되어 있는 복잡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 각 단체들 간의 이데올로기적인 편차를 노정하고 있는 것은 물론이다. 요약하면 안보와 통일의 문제로 대별할 수 있을 것이다.

정치와 경제 및 인도적인 측면의 문제들을 모두 연계하여 호혜주의의 입장에서 다루자는 입장이 있다. 여기에는 북한의 체제가 다원화된 체제가 아니고 노동당 중심, 김정일 중심의 일원적인 체제이기 때문에 정치와 경제가 분리되지 않을뿐더러, 인도적인 측면의 지원에 있어서도 우리의 의도와는 달리 비인도적으로 처리될 수 있다는 점, 한 마디로 말해서 북한에 대해 신뢰할 수 없는 파트너의 이미지가 강하게 자리잡고 있다. 이 입장에 의하면, 일시적인 양보나 후퇴는 바람직하지 않고, 힘에 바탕해서 강경하게 대응해 나가야 한다. 이익이든 손해든 준 만큼 받아내야 하고, 받은 만큼 주어야 한다는 호혜주의의 입장을 견지한다. 우리가 경제적, 인도적 차원에서 어떤 지원을 했을 경우에 그에 상응하는 응답이 정치적인 차원에서이든, 경제적 차원에서 회신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와는 달리, 정치와 경제 및 인도적 차원의 문제들을 각기 분리해서 접근하자는 주장이 있다. 정치와 경제를 분리해서 정치적인 측면에서는 호혜성에 기반을 두되, 경제적인 측면에 대해서는 정부가 남북경협을 제도적인 보장과 함께 장려는 하되, 궁극적으로 기업의 자기책임 하에서 협상과 거래를 하도록 하기 때문에, 기업의 자기판단 하에 호혜적일 수도 있고, 비호혜적일 수도 있다. 그러나, 인도적인 측면에서는 비호혜적인 즉 일방적인 지원의 형태를 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물론, 한국이 북한과의 적대적 대립관계를 유지하고 있지만, 민족통합의 과제라는 대명제를 고려하여 한국이 대북정책의 대상으로 삼아야 하는 것은 북한이라는 국가 그 자체가 아니라 북한에 거주하고 있는 구성원, 즉 북한주민이어야 한다는 점을 중시한다. 비정치적 분야의 협력관계의 유지의 확대가 결국 정치적 통합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한다. 무엇

보다도 북한의 경제적 위기에 대한 인도적 차원의 지원을 강조한다.

정치와 경제는 호혜성의 바탕 위에서 진행해 나가되, 인도적 측면의 지원은 일방적 공여자의 입장을 당분간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북한의 인권, 식량 사정 개선의 문제는 국제적인 공조를 통한 압력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도록 해야 할 것이다.

Ⅲ. 왜 통일교육을 실시하는가?

통일은 삶의 질 차원에서 보든, 경제적 측면에서 보든, 인도적 차원에서 보든, 민족 사적 차원에서 보든, 국제정치적 역학관계에서 보든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 당위성이 있는 우리의 과업이라고 보자. 통일이 당위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과업이라고 해서 자연법칙적으로 이루어지는 과정일까? 그렇지 않다. 바로 여기서 제도적이고, 정책적이며, 교육적인 노력이 가해져야 할 필연성이 있는 것이다. 통일교육은 통일을 이루기 위해 투여되는 교육적 노력을 총칭해서 말하는 것이다. 통일교육은 체제통일 과정에서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고 국민적 역량을 결집시키기 위해 필요한 측면이 있고, 통일 이후 경제, 사회문화적 통합을 달성하여 이른바 완전통일에 근접한 상태에 이르기 위해 필요한 것이다.

1. 체제통일과정에서 국민적 합의 도출

남북한 관계는 민족내부적 성격을 띠고 있음과 동시에 국제정치적 성격을 띠는 복잡다단한 문제이므로, 남한과 북한이 하나로 합쳐져 한 국가가 되는 통일의 과정은 필연적으로 복잡한 성격을 띠지 않을 수 없다. 또 보다 근본적으로는 통일과정은 남한은 남한대로 북한은 북한대로 산적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을 동시에 함유하고 있는 난제이기도 하다. 통일을 위해서는 북한은 북한대로 민주화의 과정을 밟아나가는 것이 순리이겠지만, 민주화된 남한에 있어서는 국민들의 통일을 향한 의지와 열망과 에너지를 응축시켜 나가는 노력이 무엇보다도 요청된다고 하겠다. 통일은 국민들의 의사와 무관하게 지배엘리트의 정치적 해결만으로 달성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지배엘리트의 리더십도 무엇에 비할 수 없이 중요한 요인이긴 하지만, 국민들의 의사를 결집시키지 못한 채 독자적인 행보만으로는 만족스런 과정과 결과를 기대할 수 없다. 무엇보다도 국민들의 통일에 대한 의식, 의지, 열망, 실천이 제일 중요하다. 지배엘리트는 국민들의 의사를 수용하거나 의견을 하나로 수렴시켜 가는 창조적 리더십이 요청된다 하겠다.

국민들의 통일에 대한 의식, 의지, 열망, 실천은 바로 광범위한 교육적 노력의 소산이다. 그래서 학교통일교육이 실시되고 있고, 매스미디어를 통한 통일교육, 사회기관에서의 통일교육이 행해지고 있는 것이다. 통일교육지원법 및 시행령이 제정된 것도 바로 통일을 향한 교육적 노력이 절실히 요청된다는 자각에 따른 것이다.⁸⁾

2. 체제통일 이후 사회문화적 통합의 달성

통일은 일차적으로 정치·경제체제와 사회구조의 통합이지만, 체제와 구조의 통합은 의식과 가치관의 융합이 없으면 불가능하다.⁹⁾ 바로 여기에 통일을 위한 교육적 노력이 요청되는 것이다.

신생국들의 내부분열과 대립은 외세의 이해관계 때문에 일어나는 경우도 없지 않으나, 독일의 경우처럼 점령군들이 분단하여 각각의 정부를 세워 놓고 통합을 공식적으로 가로 막는 상황이 아니면, 내부분열과 대결은 궁극적으로 양 집단의 민족통합의 식이 낮기 때문에 일어난다.

만약 서독과 동독이 각기 자라나는 세대와 국민들에게 상대방을 불구대천의 원수로 가르치고, 반드시 타도해야 할 대상이요, 반민족적 집단으로 가르쳤다면 독일의 통일은 이루지도 못했을 것이다. 또한 외부의 힘에 의하여 혹시 통합하였다 해도 분열과 반목으로 참다운 통일을 얻지는 못했을 것이다.

정신의 통합 없이는 물질적 통합은 실현시키기도 어려우며, 인위적으로 물리적 통합을 성취하였다 해도 정신적 원심력의 작용 때문에 참다운 통일은 이루어질 수 없고, 오히려 재분단의 길로 나아갈 수 있다. 통일국가가 분열하는 사례를 역사는 얼마든지 보여준다.

8) 1999년 8월 6일부로 시행되는 '통일교육지원법'과 '통일교육법시행령'은 통일교육의 필요성을 전 국가적으로 체계적으로 실시할 필요성을 인식한 단적인 증거라고 하겠다.

9) 김신일, "민족통일에 대비하는 사회교육," 한국사회교육협회, 『사회교육연구』 제16권, 1991, p.54.

그러므로 교육이 뒷전에 머물러 있는 통일 논의는 비현실적이다. 교육은 통일을 가능하게 만들고, 나아가 언젠가 이룩될 통일을 지속시키고 강화시키는 가장 핵심적인 힘이다.¹⁰⁾

IV. 통일교육의 성격

1. 통일교육으로서의 민주시민교육

통일 과정에서나 통일이후를 대비하는 측면에서나 민주시민의식의 육성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민주시민교육은 서로 다른 사회의 구성원들의 의지를 효과적으로 결집시키고 갈등하는 당사자들이 수용할 수 있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게 한다.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을 기르는 것은 남한 내부적으로 통일의 방법에 대한 합의를 가능하게 할 것이며 남북한 간에는 통일의 방법과 통일 이후의 삶의 방식에 있어 합의를 가능하게 할 것이다.

또한 민주시민교육은 권위주의체제를 부정하고 개인의 권리와 자유에 대한 의식을 굳건히 지니도록 할 뿐만 아니라 다양성을 존중하고 나와 다른 타인에 대해 관용하는 자세를 길러 줄 것이다. 정당하지 않은 권력에 저항하고 우상숭배적 개인숭배를 단호히 거부하도록 할 것이며 비판과 비평의 중요성과 표현의 자유에 대한 믿음을 지니도록 할 것이다.¹¹⁾

2. 통일교육으로서의 통일가치관교육

우리들의 의식태도가 현상을 유지하거나 변화시키는 큰 힘이 된다고 할 때 통일지향적 인간상을 형성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통일에 대한 의지와 낙관적 전망, 미래에 대한 긍정적 태도를 가지는 인간으로 육성해야 통일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10) *Ibid*

11) 박진표, "통일교육의 교육내용에 관한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교수논총』 (한국교원대학교, 1994), p.33.

것이다. 다시 말하면 통일교육이 도덕교육의 한 요소로서 받아들여진다면, 그것은 도덕적으로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분단과 분열을 극복해 나가는 학생들의 능력을 함양시키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통일문제를 인식하는 능력의 함양은 통일관의 형성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 통일관이란 남북한 통일에 대한 시각 또는 체계화된 견해이다. 통일교육은 통일인식의 문제와 통일관 형성의 문제를 상호연관된 개념으로 파악하고, 국민 개개인이 통일관련문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능력 즉 통일인식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측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통일교육기본지침서에서도 이런 점은 명확히 밝히고 있다. “통일교육은 분단의 배경과 폐해를 올바르게 이해시키고 남북한간의 평화정착의 실현과 이를 바탕으로 한 통일의 필요성을 일깨움으로써 국민들이 통일의지를 확립할 수 있도록 실시해야 한다”¹²⁾며 통일의지의 고취를 통일교육의 과제의 하나로 제시하고 있다. 아울러 통일에 대한 올바른 준비태세 배양을 통일교육과제의 또 다른 하나로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통일교육은 점진적·단계적으로 통일을 이루어 가는 과정에서 우리가 직면하게 되는 여러 가지 과제를 예견하고 그 해결방향을 제시함으로써 통일과정에 대해 명확한 전망과 준비태세를 갖추도록 실시해야 한다.”¹³⁾

3. 통일교육으로서의 민족공동체교육

민족공동체교육도 또한 통일교육으로서의 성격을 가진다. 민족공동체교육은 민족적 정체성을 유지해 나가기 위한 측면에서는 물론이고 통일을 대비하는 교육의 차원에서나 통일 이후를 고려하는 교육의 차원에서 볼 때 실시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같은 혈통, 언어, 문화의 공유는 의사소통 혹은 감정적 교류를 용이하게 함으로써 의사소통적 거리를 순식간에 단축시켜 놓고 같은 구성원이라는 강한 끈끈한 의식을 갖게 한다. 이것은 민족의 재결합 및 유지에 있어서 근본적인 하나의 구심점 역할을 한다. 즉 과거의 사회경제적 상태로의 단순한 회귀가 아니라 공통의 전통, 공통의 경험, 조건, 사건이라는 상호작용적인 계기들에 기반한 재조직화의 과정 및 발전에 있

12) 통일부정책실, 『2000년 통일교육기본지침서』 (서울: 통일부, 1999), p.9.

13) *Ibid.*, p.10.

어서 점착력의 구실을 한다는 점이다. 이러한 점에서 민족공동체교육은 남북간에 대립, 적대의식을 해소하게 하고 남북한이 한 민족의 구성원임을 인식하게 하는 목표에도달하여 통일의 과정을 보다 원활하게 진행시켜 나갈 수 있게 한다.¹⁴⁾

4. 통일교육으로서의 평화교육

일반적으로 ‘평화교육’이란 ‘평화에 관한 교육’이요, ‘평화를 위한 교육’이요, ‘평화애로의 교육’을 말한다. 즉, 평화교육이란 평화에 관한 지식을 전달하는 교육이고, 평화를 만들 수 있는 신념과 능력을 길러주는 교육이며, 더 나아가서는 실제로 평화운동에 동참하는 사람을 기르는 교육이다.

독일에서의 평화교육은 일반적으로 세 가지 차원에서 이루어졌다. 첫째로는 이념적 차원이다. 여기서는 평화가 하나의 인류의 이상으로 이해되고, 그러한 인류의 이상실현에 학생들이 책임적으로 참여하도록 이끄는 것이 평화교육의 주관심사이다. 두 번째는 개인적 차원이다. 여기서는 개인의 태도와 행동의 변화에 주관심이 기울여진다. 평화에 대한 인식을 갖고, 평화를 이웃과 친구와의 관계에서 연습하는 것이 주요 교육내용이다. 세 번째는 사회적이고 계몽적인 차원이다. 여기서는 현재의 세계정치의 구조, 경제체제, 전쟁의 원인 등에 대해 학생들이 깨닫도록 계몽하고 가르치는 것이 주관심사이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이 세 차원은 평화교육에서 모두 함께 강조되어 운영되어 왔다.

남북관계에서의 평화교육은 단순히 평화적 사고를 갖추게 하고 평화적으로 문제를

14) 민족동질성교육 등을 포함한 통일교육이 말이나 구호처럼 용이한 것이 아니고 비교적 안목과 과학적 예측 속에서 세세하게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음을 동서독의 통합 이후 수그러들지 않고 있는 동서독 주민들 간의 ‘마음의 장벽’을 예로 들어 설득력 있게 설명하고 있는 글이 있다. “통일 전 서독에서 주민들에게 동독을 소개하고 가르쳐 왔음에도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또 통일된 후 독일정부가 지속적으로 통일의 후유증을 해소하기 위한 사회통합교육을 실시해 오고 있음에도 ‘마음의 장벽’을 근본적으로 해소치 못하며 실질적인 통일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통일교육이 얼마나 어렵고도 중요한지에 대하여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동서독이 통일되면서 이런 문제점이 생겼을진대 주민들간의 이질감이 동서독의 경우보다 훨씬 심한 남북한이 통일될 경우 어떤 문제가 발생하리라는 것을 어렵지 않게 예측할 수 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통일교육이 과연 통일 후 예상되는 문제점들을 해결해 나가는 데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는가 하는 점이다. 이렇게 우리의 통일교육에 대하여 문제제기를 하는 것은 남북한의 경우 옛 동서독과 달리 주민들 간의 접촉이 극히 제한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상대방의 TV를 자유롭게 시청할 수도 없어 북한 내 경험현장에서 주민들이 접촉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사회통일교육과 학교통일교육이 서로를 알게 해 주는 거의 유일한 통로이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 정상돈, “대북포용정책과 통일교육”, 『국가전략』6권 4호 2000년 겨울.

해결하는 능력을 갖추는 것뿐 아니라, 통일의 과정과 통일 이후에 평화로운 공존의 삶을 준비한다는 차원에서, 즉 통일교육의 차원에서 큰 의미를 지니고 있다.

V. 유아교육과 통일교육의 관계

통일교육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민주시민교육, 통일관교육, 민족공동체교육, 평화교육으로서의 성격을 갖는다. 다시 말하면 민주시민의 자질, 통일의 의지, 평화의 마인드, 민족공동체에 대한 강한 애정 등의 함양이 바로 통일교육이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내면화는 기본적인 신념과 정서의 문제로서 유치원 원생들에게도 기본적으로 초보적인 수준에서나마 함양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헤스와 이스튼은 유아들이 사회적 현상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개념, 태도, 가치가 언제부터 형성되는가를 알아보았다. 그 결과 유아가 사회적 현상을 이해하는 가치, 태도, 개념은 초등학교에 입학하기 전 6 세 이전에 그 모양이 형성되기 시작하며 빠른 속도로 변화하여 초등학교 과정이 끝날 때쯤이면 사회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 태도, 가치가 굳게 성립되어 간다는 것을 알았다. 그러므로 유아기에 사회에 대한 개념, 태도, 가치를 어떻게 형성하느냐 하는 문제는 일생을 좌우하게 된다.¹⁵⁾

램버트와 클라인버그는 유아가 외국인을 보는 견해에 대하여 밝히고 있다. 유아는 외국인을 볼 때 비슷한 것보다는 다른 것을 찾아내려고 하는데, 이 때 외국인과 유아 자신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이해시키면 결국 이것이 상호문화적·국제적 이해에 기본이 되는 견해와 태도의 발달을 가져오게 된다는 것이다.¹⁶⁾

우리나라 제6차 유치원교육과정은 건강생활, 사회생활, 표현생활, 언어생활, 탐구생활의 5개 영역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통일교육은 이 중 사회생활 영역과 관계된다. 이 영역은 '기본생활습관', '개인생활', '가정생활', '집단생활', '사회현상과 환경에 대한 관심'의 5 가지 항목으로 구성된다. 이 중 마지막 '사회현상과 환경에 대한 관심'이 통일교육을 직접적으로 명시하고 있으므로 이 부분을 조금 상세히 보자.

“ '사회현상과 환경에 대한 관심'에서는 현대사회가 다양한 문화나 생활양식이 공

15) Hess, R. & Easton, D., "The Role of the Elementary School in Political Socialization," *The School Review*, 70: 3(1962), pp.257-259.

16) Lambert, W. E. & Klinberg, O., *Children's Vies of foreign* (New York: Appleton Century Croots)

존하고 있음에 기초하여 지리, 직업, 경제생활 및 환경보존에 대한 관심을 포함한다. 우리나라의 분단현실을 고려하여 문화정체감과 민족동질성 형성을 위한 내용이 포함되며, 우리나라의 상징과 전통에 대한 인식을 기초로 세계의 다양한 문화에 대한 관심과 수용으로 확대되도록 한다. 지구촌화·정보화시대에 대비하여 인류공동의 자원을 보존하며 더 나아가 다양한 정보자료에 대한 관심과 폭넓은 이해를 통하여 세계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둔다.”¹⁷⁾

〈표 1〉 사회현상과 환경에 대한 관심(11-18)¹⁸⁾

내 용	I	II
15. 우리나라의 상징과 전통에 관심가지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나라를 상징하는 것을 알아본다. · 우리나라의 명절을 알아본다. · 전통문화에 대한 친밀감과 관심을 가진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태극기, 애국가에 대한 바른 예절을 알아본다. · 명절의 풍습과 예절에 대해 알아본다. · 전통문화와 관련된 경험을 해 본다.
16. 통일에 대해 관심가지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갖는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나라는 분단국가임을 안다. · 북한사람도 같은 민족이며 통일이 되어야 함을 안다.
17. 세계 여러 나라와 문화에 관심가지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러 나라 사람에 대해 알아 본다. · 다른 나라의 생활풍습을 알아본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나라와 다른 나라 사람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알아 본다. · 세계 여러 나라의 다양한 문화를 알고 존중한다.

〈통일에 대해 관심가지기〉의 내용을 다시 상세화해 보면, 북한에 대한 관심가지기 및 남북한의 동질성 인식하기, 분단의 현실과 통일의 필요성 인식하기, 통일을 위해 노력하기 등으로 세분할 수 있다고 본다. 또 그 세분된 하위내용들을 함께 제시해 보면 다음과 같다.

17) 김춘일·조용태, 『유아교육의 이해』(서울: 교육과학사, 1998), p.189.

18) *Ibid.*, p.192.

〈북한에 대한 관심가지기〉

- 북한에 대한 친근감 가지기
 - 한반도 지도 익히기: 지리적 친근감
 - 북한의 명소(산, 바다, 음식점 등)를 알아봄으로써 친근감 가지기
 - 북한의 공연예술 비디오프로 감상하기
- 북한 어린이의 생활에 대해 관심 가지기
 - 북한 어린이들의 하루 일과 알아보기
 - 북한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음식 알아보기

〈남북한의 동질성 인식하기〉

- 남북한 사람들의 비슷한 점 알기
 - 남북한 사람들의 걸모습 비교하기
 - 남북한 사람들의 언어 비교하기
 - 남북한 사람들의 명절 비교하기
- 남북한 사람들이 한 민족이라는 사실 알기
 - 남북한 사람들은 같은 조상을 가졌다는 사실 알기
 - 남북한 사람들은 나누어지기 전까지 형제처럼 지냈다는 사실 알기

〈분단현실과 통일의 필요성〉

- 마음대로 오고가지 못하는 현실 알고 합쳐지는 것의 필요함 알기
 - 만나고 싶은 형제가 있어도 마음대로 가서 만나지 못하는 현실 알기
 - 여행하고 싶은 곳 마음대로 가보지 못하는 현실 알기
 - 전화도 안 되고, 편지도 안 되는 현실 알기
- 도움을 많이 필요로 하는 북한 어린이의 현실 알고 합쳐지는 것의 필요함 알기
 - 북한 어린이들이 먹을 것, 입을 것이 부족한 현실 알기
 - 북한 어린이들이 아팠을 때 치료를 잘 받지 못하는 점 알기
 - 북한 어린이들이 재미있는 TV도 잘 보지 못하는 점 알기
- 형제끼리 나누어져 싸우지 말고 합쳐져 사이좋게 지내는 것이 좋은 점 알기
 - 형제끼리 충을 만들어 싸우면 마음이 아플 것이라는 것을 느끼기
 - 형제끼리 서로 돕고 살면 기쁠 것이라는 것을 느끼기

〈통일을 위한 노력〉

- 북한 어린이들을 사랑하는 마음 가지기
 - 북한 어린이들에게 따뜻한 사랑의 마음 편지로 전달하기
- 북한 어린이들을 도울 수 있는 점 생각해 보고 실제로 해 보기
 - 북한 어린이들에게 학용품 보내기
 - 북한 어린이들에게 겨울 옷 보내기
 - 북한 어린이들에게 치약, 칫솔 보내기
 - 북한 어린이들에게 절약해서 저축한 ‘사랑의 저금통장’ 보내기

Ⅵ. 幼稚園 통일교육의 실제

위의 상세화 내용들과 유치원에서 사용가능한 방법 몇 가지를 다음 표와 같이 엮어서 실제의 교육에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표 2〉 유치원통일교육 내용과 방법

	북한에 대한 관심 가지기	남북한의 동질성	분단현실과 통일의 필요성	통일을 위한 노력
동시읽기				
노래부르기				
그림보고 이야기 꾸미기				
편지쓰기				
팝콘글자				
만들기				
그림그리기				
디스코그래피				
역할놀이				
통일기원 주사위놀이				
인형극				
그림동화, 음판동화, TV동화				
답사하여 체험하기				

1. 동시 읽기

통일을 소망하는 시를 장면과 분위기에 맞게 다양한 방법으로 낭송을 하게 한다.(다른 영역도 마찬가지이다) 칼라TP자료와 녹음자료, 멀티미디어를 활용하여 아동들의 흥미를 유발시키고 떠오르는 생각을 간단한 그림으로 나타내게 한다. 다음과 같은 동시를 활용할 수 있다.

〈통일은 참 쉽다〉¹⁹⁾

-윤동재-

통일은 참 쉽다
남쪽 북쪽 철조망
둘둘 말아 올리면 되지

통일은 참 쉽다
남쪽 북쪽 선물
주고받으면 되지

통일은 참 쉽다
남쪽 북쪽 우리 겨레
왔다갔다하면 되지

통일은 참 쉽다
이렇게 쉬운 통일 어른들은
왜 안 하나 왜 못하나

19) 이오덕 외, 『통일은 참 쉽다』 (서울: 도서출판 산하, 1996)

2. 노래부르기

의도적인 목적을 위한 노래의 활용은 가장 많이 사용되는 방법 중의 하나이다. 노래를 자꾸 부르고 들으면서 아동들은 북한에 대한 관심가지기 및 남북한의 동질성 인식하기, 분단의 현실과 통일의 필요성 인식하기, 통일을 위해 노력하기 등 통일과 관련된 기초적인 인식을 하고, 초보적인 의지를 다질 수 있을 것이다.

〈우리 산 우리 강〉

북쪽으로 가면 백두산
남쪽으로 가면 한라산
우거진 수풀 바람막아주는
정다운 산 우리 산

북쪽으로 가면 두만강
남쪽으로 가면 낙동강
큰 바다에서 반갑게들 만날
즐거운 강 우리 강

3. 그림보고 이야기꾸미기

남북의 동질성이나 이질성을 설명해 주는 그림이나 사진, 북한의 식량부족 실태에 관한 그림이나 사진, 이산가족의 비애가 담긴 그림이나 사진, 남북한 단일팀의 선전에 관한 그림이나 사진, 남북정상만남 사진 등을 제시하고 그에 대한 이야기를 꾸며 나가도록 한다.

4. 편지 쓰기

북한 친구들에게 전하고 싶은 내용을 그림으로 그리고 글로 나타내어 편지를 전해 봅시다.

북한 친구들에게 유치원에서 어떻게 생활하는지를 물어보는 내용의 편지를 써 봅시다.

5. 팝콘글자: '우리는 하나' '우리는 형제'

- 두꺼운 종이카드에 글씨를 파낸 글자카드를 제시한다.
- 글자카드를 종이 위에 대고 연필로 따라 그린다.
- 본드를 글자 위에 골고루 칠하고, 팝콘을 글자 위에 붙인다.
- 만들어진 글자를 함께 읽어 본다.

6. 만들기

〈찰흙 지도 만들어 관찰하기〉

어린이들이 함께 찰흙판 바닥에 찰흙을 얇게 발라 붙인다.

어린이들이 함께 우리나라 평면지도를 만든다.

찰흙이 없는 부분에 파란색 물감을 부어 바다를 표현한다.

3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다는 점과 우리나라의 모양을 안다.

찰흙지도의 잘려진 허리를 붙이고 떼고 해 봄으로써 분단되어 있음을 안다.

7. 그림그리기

- * 남한과 북한이 통일되었습니다. 다음 그림에 알맞게 예쁘게 색칠해 보세요.
- * 우리는 친구 색칠하기. 북한 어린이와 어깨동무하는 모습을 그려보세요.
- * 통일이 되어 남한과 북한의 선수들이 한 팀이 되었습니다. 그 선수들이 함께 입을 유니폼을 만들어 보세요.
- * 나누어진 우리나라 지도에 색칠해 봅시다.
- * 통일된 우리나라 지도에 색칠해 봅시다.
- * 통일이 된다면 북한 땅에 가서 어떤 일을 하고 싶습니까? 상상하여 그림으로 나타내고 설명도 써 봅시다.
- * 북한어린이를 길거리에서 만났을 때 어떤 말과 행동을 할지 그림으로 그려 봅시다.

8. 디스코그래피

분단의 고통, 이산의 슬픔, 재회의 기쁨 등을 잘 나타내 주는 테이프, 레코드 등과 같은 것을 통해 교육과정을 보충하려고 하는 기법이다. 이것은 녹음테이프 자료만이 아니라 애니메이션이나 영화작품으로도 얼마든지 활용가능하다.

9. 역할놀이

북한 어린이를 길거리에서 우연히 만났을 때 어떤 말과 행동을 할지, 북한 어린이와 장난감 놀이를 할 경우 어떻게 사이좋게 지낼 수 있는지, 북한 어린이와 운동경기를 하게 될 경우 어떻게 할 것인지, 서로 역할을 교대해 가며 느낌을 가지도록 한다.

10. 인형극

남한 아동들과 북한 아동들의 생활에 관련된 내용을 중심으로 물어보고 대답하는 형식의 인형극을 통해 북한에 대해 궁금한 점들, 느낀 점들을 표출할 수 있다. 또 북한에 가면 제일 먼저 하고 싶은 점들을 중심으로 인형극을 꾸밀 수도 있을 것이다.

11. 그림동화, 용판동화, TV동화 등

북한관련 동화내용을 그림·용판·TV판 등의 매체를 사용하여 전달함으로써 유아들의 흥미를 자극하고 시청각자료로써 그 내용의 이해를 높일 수 있다.

그림동화는 동화내용을 마분지 같은 종이 몇 장에 그림으로 그려 어린이에게 보여 주면서 이야기해 주는 방법이다. 어린이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간단하고 분명한 형태·색채·크기의 그림으로 표현하고, 어린이들이 보기 좋은 높이로 들고 어린이의 반응을 살피 가며 읽어 주도록 한다.

용판동화는 모래종이나 용을 붙여 만든 용판에 동화의 등장인물이나 배경그림을 붙여 가면서 이야기한다. 용판동화를 위해서는 등장인물이 적고 줄거리가 단순한 이야기가 적절하다. 동화를 시작하기 전에 용판 자료를 순서대로 잘 정리해 두어야 하며, 이야기 내용에 따라 또 배열 관계를 고려하여 용판자료를 붙이도록 한다.

TV동화는 상자 또는 나무를 사용하여 TV 모양처럼 만든 틀에 그림이 그려진 종이를 끼워서 한편에서 반대편 쪽으로 종이를 감으며 이야기를 해 주는 방법이다. 종이가 감겨지면서 그림이 나오므로 장면과 장면을 연결하여 그림을 그리도록 한다.

12. 통일기원 주사위놀이

- a. 제주도에서부터 시작하여 백두산에 이르는 길을 지그재그식으로 만들어 통과지점을 만든 지도를 제시한다.
- b. 주사위를 던집니다.
- c. 나오는 수만큼 말을 옮깁니다.
- d. 먼저 백두산에 도착하는 편이 이깁니다.

14. 답사하여 체험하기

전쟁과 평화를 상징하는 기념관이나 유적지 등을 탐방하여 전쟁의 참극과 분단의 비애와 평화의 갈구를 느끼게 한다.

Ⅶ. 결 어

이 글의 기본관점은 통일문제는 그보다 상위가치라고 할 수 있는 '삶의 질'의 차원에서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이었다. 통일문제를 둘러싼 여러 가지 쟁점들을 논하면서 장기적이고 계획적이고 단계적이고 과정적인 접근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또 1국가 1체제의 달성이라는 통일목표의 최대화보다는 1국가 2체제의 수립이라는 통일목표의 최소화를 추구하여 일단 그 단계에 진입하고 그런 연후에 점차 양적으로, 질적으로 접촉빈도수를 심화시켜 가는 숙성과정을 거쳐 통일목표의 최대화에도 도달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통일교육은 통일을 대비하는 입장에서나 통일 이후의 사회문화적인 진정한 통합을 위해서도 필요한 것이라는 점과, 또 통일교육은 민주시민교육, 통일인식 및 통일관형성교육, 민족공동체 의식교육, 평화교육 등과 겹쳐지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교육들을

통해서 통일의 마인드를 형성할 수 있음을 적시하였다. 유치원에서도 통일교육이 요구됨을 정치사회화이론과 우리나라 유치원교육과정을 근거로 밝혔으며, 유치원통일교육에서 어떤 내용들이 다루어질 수 있는지 그 유치원통일교육 내용의 체계화에 대해 필자 나름대로의 구상을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이 내용들을 효과적으로 이해하고 내면화하기에 적합하다고 생각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제시하여 내용과 방법들을 교차시켜 보았다. 그리고 그 방법들에 대해서도 약간의 설명을 가했다.

통일문제는 남한 내부의 결의와 노력만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북한이라는 엄연한 파트너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의 변화와 통일의지 및 자발적이고 진지한 민족공동체 형성노력이 또한 요구되는 복합적인 문제이다. 그러기 때문에 통일에 관한 갖가지의 주장은 공허한 메아리로만 울릴 가능성이 높은 것이 사실인 점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평화와 통일의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하고, 우리의 의식 속에서 미리 준비가 이루어져 있어야 통일을 견인할 수 있다는 점도 또한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의 공교육차원에서의 노력과 사회운동차원에서의 노력이 병행하여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남한 내부에서 내실을 다지면서 차츰 변화의 모습을 보이고 북한과 더불어 제휴 협력하는 시스템을 마련하여 접촉 빈도수를 넓혀가면 북한 자체의 경직된 구조도 역사의 흐름 속에서 봄벌에 얼음 녹듯 변화될 가능성이 없지는 않을 것이다.

참고문헌

- 박병선(1992), 민주시민교육, 한국교육개발원.
 교육부(1993), 통일교육지도자료, 교육부.
 _____(1995), 유치원교육활동 지도자료, 교육부.
 교육정책자문회의(1990), 남북통일에 대비하는 교육방안, 교육부.
 김신일, "민족통일에 대비하는 사회교육", 『사회교육연구』, 한국사회교육협회.
 김영옥 외(1995), 한국 현대유아교육사, 양서원.
 김지영(1996), 통일에 대비한 유아교육과정개발을 위한 기초조사연구, 이화여자 대학교 박사학위청구논문.
 김춘일·조용태, 『유아교육의 이해』, 교육과학사.

- 문용린(1990). 민주시민 생활화를 위한 유아교육 방향. 유아기의 민주시민교육방향. 이화여자대학교 사범대학 부설 인간발달연구소.
- 문정인(2000), “남북정상회담과 중층적 모순구조”, 계간 『철학과 현실』, 철학문화연구소.
- 박용현(1994), 통일교육활성화를 위한 제도화 방안, 통일원, 통일환경 변화와 통일 교육발전방향.
- 박진표, “통일교육의 교육내용에 관한 연구”, 『한국교원대학교교수논총』, 한국교원대학교.
- 박찬석(2000), 『통일교육론』, 백의.
- 방영준(1994), 통일교육의 현실과 그 진단, 통일문화형성과 통일교육, 한국국민윤리학회.
- 서규선(1995a), 통일교육방법론연구, 서원대 사회과학연구소, 사회과학연구 8집.
- 서규선(1995b), 통일교육의 쟁점, 한국교육사회연구소, 교육사회연구 2집.
- 서규선(1993), 한민족공동체 형성을 위한 통일교육의 과제, 서원대 사회과학연구소.
- 서규선·조경희(1995), 한국 유치원에서의 통일교육 : 유치원 교육과정 및 교재 분석, 서원대 교육연구소, 교육발전 14집.
- 서규선·윤기영(1995), 유치원의 통일교육 방향모색, 한국국민윤리학회, 국민윤리연구34호.
- 서홍선(1995), 통일교육에 대한 유치원교사의 인식과 현황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윤기영 외(1997), 유아교육기관의 통일교육, 창지사.
- 윤기영·이미숙(1995), 학교통일교육지침에 입각한 유치원의 통일교육 구현방향 모색, 한국유아교육학회, 유아교육연구, 15권 1호.
- 이삼렬(1991), 평화의 철학과 통일의 실천. 교문사.
- 이오덕 외(1996), 『통일은 참 쉽다』, 도서출판 산하.
- 이영환(1993), 민족동질성 회복을 위한 통일교육의 발전방향, 북한 4월호.
- 이은화 외(1994), 유아사회교육, 양서원.
- 이정환(1993), 유아교육의 교수학습방법, 교문사.
- 장경호(1993), 통일교육의 내용구성에 관한 기초연구, 한국정신문화연구원 박사학위논문.
- 정상돈(2000), “대북포용정책과 통일교육”, 『국가전략』6권 4호.

- 정세구(1983), 초-중-고등학교 국민윤리교육론, 교육과학사.
- (1993), 통일교육의 실태와 문제점, 사회과 교육 26, 한국사회과교육연구회.
- 정영수(1993), 통일대비교육의 방향, 한국교육학회, 교육학연구.
- 정용석(1994), 통일교육의 효과적 실시 방안, 통일원 세미나, 통일환경변화와 통일 교육발전방향.
- 조난심(1994), 인간주의 교육에 대한 소고, 충북교육 13.
- 중앙교육심의회(1992), 국-중-고교의 통일교육지침 개발에 관한 연구, 교육부.
- 진덕규(1998), “분단된 민족의 통일과 발전”, 『세계화시대의 민족공동체』, 서강대출판부.
- 통일교육원(2000), 북한이해.
- 통일교육원(2000), 통일문제이해.
- 통일부(2000), 2000년 통일교육기본지침서.
- 통일부(2000), 통일백서, 통일원.
- 한국교육개발원(1993), 통일에 대비한 교육정책연구 I, II, 한국교육개발원.
- 한국교육개발원(1994), 유치원용 민주시민교육프로그램, 대한교과서주식회사.
- 한만길(1994), 학교통일교육의 사회과학적 접근모색, 평화문제연구소, 통일문제연구 6권 2호, 평화문제연구소.
- 함수곤외(1993), 유치원교육과정해설, 교육부.
- 황병덕(1997), 통일교육의 개선 방안 연구, 민족통일연구원.
- Dawson, R.E., Prewitt, K.& Dawson, K.(1977) .Political Socialization (Boston:Little, Brown and Co, Inc.).
- Easton, D. & Hess, R.D.(1962). The Child's Political World, Midwest Journal of Political, VI.
- Hess, R. & Easton, D.(1962), "The Role of the Elementary School in Political Socialization," The School Review 70.
- Hicks,D.(1987), 고병헌 역, 평화교육의 이론과 실천, 서원.
- Kirschenbaum, H.(1995), 100 Ways to Enhance Values and Morality in Schools and Youth Settings, Boston & London: Allyn and Bacon.
- Lambert, W. E. & Klineberg, O., Children's Vies of Foreign Peoples (New York: Appleton Century Croots)